

## 南野 朴孫慶의 삶과 문학을 통해 본 '金塘谷'의 사회적 상징성

권 경 록\*

### 차 례

- |                     |                    |
|---------------------|--------------------|
| 1. 서론               | 4. '金塘谷', '踐形'의 공간 |
| 2. '嶺南三老', 處士의 삶    | 5. 결론              |
| 3. '金塘谷'에 대한 시선과 표상 |                    |

### 국문초록

이 글은 '영남삼로(嶺南三老)'로 일컬어지던 남야(南野) 박손경(朴孫慶)의 시문을 통해 그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 현장의 문화지리적 의미를 밝힌 것이다. 박손경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백불암(百佛庵) 최흥원(崔興遠)과 함께 18세기 '영남삼로'로 추앙되었다. 그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십승지로 일컬어지던 예천(醴泉) '금당곡(金塘谷)'에서 실천하는 처사(處士)로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이 글은 문학 속에 재현되는 공간 표상이 사회적 공간으로서 지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지리적 공간과 문학적 공간표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학지리학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

\* 동국대학교

개했다. 이 글은 ‘금당곡’에 관련된 박손경의 문학적 공간표상이 사회적  
으로 생산된 하나의 공간이라는 전제 위에서 서술되었다.

그 결과 박손경의 문학에 재현된 ‘금당곡’은 ‘일상의 공간’, ‘교유·교  
화의 공간’, ‘천형(踐形)의 실천 공간’이었다. 박손경은 ‘사람다움을 실현  
하는 것’, 곧 ‘천형’을 사람의 직분으로 이해했고, ‘금당곡’은 그 직분을  
다하는 삶의 공간이었다. 시대의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가는  
철저한 ‘진인(眞人)’의 심상공간이었다. 박손경이 ‘금당곡’에서 처사로 ‘천  
형’을 실천하고, 문학을 생산해 낸 것은 십승지 ‘금당곡’이라는 사회·지  
리적 결과와 질서 속에서의 장소 점유와 문화의 생산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박손경(朴孫慶), 이상정(李象靖), 최흥원(崔興遠), 영남삼로(嶺  
南三老), 문학지리, 예천(醴泉), 금당곡(金塘谷), 십승지(十勝  
地), 천형(踐形), 심상공간(心象空間).

## 1. 서론

이 글은 ‘영남삼로(嶺南三老)’로 일컬어지던 남야(南野) 박손경(朴孫慶  
1713~1782)<sup>1)</sup>의 삶과 문학을 통해 그 현장의 문화지리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박손경은 주자(朱子)와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추승했  
으며,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 백불암(百佛庵) 최흥원(崔  
興遠 1705~1786)과 함께 18세기 ‘영남삼로’로 추앙되었다. 그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십승지로 일컬어지던 예천(醴泉) 금당곡(金塘谷), 일명  
‘금당실’에서 ‘천형(踐形)’을 실천하는 처사로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박  
손경이 살았던 ‘금당곡’, ‘금곡(金谷)’은 인근의 풍기(豊基) 금계촌(金鷄

1)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희유(希有), 호는 남야(南野)이다. 부(父)는 사헌부지평  
성옥(成玉)이고 모(母)는 안동권씨 통덕랑 규(龜)의 딸이다.

村), 안동(安東) 내성(奈城, 현재의 봉화군 춘양)과 함께 『정감록(鄭鑑錄)』, 『십승지론(十勝地論)』에 나타나 있는 십승지의 한 곳으로 유명했다. 금당곡은 지금의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금당실’인데, 남사고(南師古)는 병과(兵戈)가 미치지 않아 오래 살 곳이 된다고 하였다.

문학을 통한 박손경의 삶과 그 현장에 대한 조망은 중심부의 삶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한 주체의 문화적 행위에 의해 생성된 문화공간에 대한 탐색이다. 즉 중심부의 삶을 경험하지 않은 영남지방의 한 문화 주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문화를 생산하는가에 관한 탐색이다. 사회적 공간의 생성과 변화는 지리적 공간 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학 속에 재현되는 공간표상이 사회적 공간으로서 지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과 문학적 공간표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금당곡’에 관련된 문학적 공간표상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하나의 공간이라는 전제 위에서 문학지리학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논의의 초점은 18세기 ‘영남삼로’로 추앙 받던 박손경이 지리적 공간 ‘금당곡’을 표상하는 문학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 지역의 공간성을 살피는 데 있다. 즉 닫힌 공간 십승지 ‘금당곡’이 박손경의 문학 속에서 배치, 구성되는 표상 원리를 찾고, 그리고 그러한 의식적 배치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된 공간이 어떻게 다시 ‘공간성’을 획득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는 재해석의 작업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행동을 할 때는 언제나 지리적 결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흔적들이 만들어지면 그들 내부의 질서가 발생하고 경계가 구성된다. 권력이 행사되고 가시화되고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지리를 통해서, 즉 장소의 점유와 생산을 통해서이다.<sup>2)</sup> 박손경이 금당곡에서 처사로서 닫힌 삶을 영위하고 문학을 통해 그 공간을 표상하고 새로운 의미를 재현, 생산해 낸 것은 자

2) 존 앤더슨 지음/ 이명민·이종희 옮김, 『문화 흔적 장소-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한울, 2013, 98쪽.

연의 공간 십승지 ‘금당곡’이라는 지리적 결과와 질서 속에서 장소의 점유와 문화의 생산인 것이다.

문화사회학의 범주에서 보면, 문화주체에 의한 공간의 인식과 기능적으로 배치된 공간에 의한 삶의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십승지 ‘금당곡’에서의 18세기 조선 사회의 구성원인 박손경의 삶은 그 자체로 18세기 ‘조선적인 것’의 핵심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영남의 한 문화주체의 동력에 의해 생산된 주체의 감각과 시선이 ‘금당곡’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그 공간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 당시 ‘금당곡’에서 보이는 박손경의 행적과 그 결과물로서의 문학은 그의 공간인식과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중심부에서 격리된 주변부의 폐쇄적 지리 공간 십승지가 처사 박손경의 삶에 의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 재해석되고 있다. 닫힌 공간 십승지 ‘금당곡’이 박손경의 닫힌 삶에 의해 역설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재현되고 재발견되었다. 이는 ‘금당곡’이 18세기 당시 영남의 문화주체들의 방향성이 구현된 하나의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 주체로서의 인간 특징에 관련된 감수성의 포착에 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고전문학 분야에서도 고조되었다. 문학 속에 구성되는 지리적 공간표상과 재해석, 배치와 구획의 원리, 그리고 그러한 의식적 배치와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 어떻게 다시 ‘공간성’을 획득하는가에 관한 탐색이다. 이는 문화집단의 접속, 문화주체의 이동과 접촉에 따른 새로운 주체의 탄생과 문화공간의 생성 및 특징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문학 속의 공간이 유동적으로 재조직되는 과정과 그로부터 생성된 새로운 문화공간에 관한 탐색을 통해 우리 고전문학사를 재고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sup>3)</sup>

3) 최근 고전문학 분야에서 문화공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권경록, 『李海朝의 ‘峴山三十詠’을 통해본 지리인식과 襄陽地域의 사회적 상징성』, 『동양한문학연구』 34호, 동양한문화회, 2012.  
\_\_\_\_\_, 『太白五賢의 삶을 통해 본 奉化地域의 문학지리』, 『한국학연구』 38권,

문화주체 내부에서는 충격, 갈등, 저항, 수용, 변형 등의 다양한 속성이 나타난다. 특히, '한양'이 정치·문화의 전부로 인식되었던 세계관 하에서의 문화 주체의 특징에 관련된 감수성의 포착에 관한 문제와 문화 공간의 생성에 관한 연구는 전근대적 환경을 관통해온 새로운 주체의 탄생과 특징에 관한 핵심적 연구 영역이다. 그러나 역사주의적 혹은 미시사적 기원탐색의 연구 등에 익숙해 있어서 문화현상의 본질인 동시대성, 즉 문화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의 교섭에 따른 문화공간 생성의 탐색에 관한 적절한 방법론과 연구 관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sup>4)</sup> 이런 점에서 18세기 박손경의 문학을 통해 영남 문화주체의 삶과 '금당곡'을 탐색하는 것은 새로이 고전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로컬리티'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시발이 될 수 있다.

## 2. '嶺南三老', 處士의 삶

박손경의 함양박씨는 대대로 상주(尙州) 이안(利安)에 살았다. 8대조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김보경, 『寓菴 洪彦忠의 시에 나타난 巨濟島의 표상과 유배체험의 형상화 양상』, 『韓國古典研究』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이승수, 『1790년 熱河 使行的 '二道井~熱河'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탐색』, 『고전문학연구』 제40권, 한국고전문학회, 2011.

장유승, 『문화공간으로서의 浮碧樓 -중앙문인과 지역문인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53집, 한국한문학회, 2014.

정우탁,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영남학』 27, 영남문화연구원, 2015.

\_\_\_\_\_,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에 대한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 제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정후수, 『『樂健志詠』으로 본 17세기 漢江 下流의 새로운 문화 공간 杏湖』, 『동방학』 32, 동양고전연구소, 2015.

4) 권경록, 『'太白五賢'의 삶을 통해 본 奉化地域의 문학지리』, 『한국학연구』 38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8~12쪽.

인 박종린(朴從麟 1496~1553)<sup>5)</sup>이 사용교위(司勇校尉) 문억경(文抑磬)의 딸 감천문씨(甘泉文氏)에게 장가들면서 예천 금당곡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함양박씨 박종린은 5형제 문과급제로 당대 이름을 떨쳤는데, 이조정랑(吏曹正郎)의 벼슬을 하다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전횡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처가가 있는 예천(醴泉) 금당곡(金塘谷)에 살면서 학문 연구에 힘썼다. 그의 집안은 낙향해 살면서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대대로 명문 집안으로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부친 박성옥(朴成玉)은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고을 사람들이 의병장으로 추대했을 만큼 고을에서 인망이 높았던 인물이었다.<sup>6)</sup>

“인재(人才)로는 예천(醴泉)의 전 참봉(參奉) 박손경이 효성과 우애, 재주와 학식이 훌륭하여 좌도(左道) 인사(人士)들의 추앙(推仰)을 받고 있는데, 깊은 산속에서 흰 머리로 가난을 지키면서 글만 읽고 있습니다.”<sup>7)</sup> 고 한 기록은 인간 박손경을 적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말에서 그의 삶은 물론 18세기 당대 ‘영남삼로’로서의 위상과 지향하는 바를 여실히 읽을 수 있다. 박손경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단한 삶을 살았다.

세상에서 선생의 문장을 흠모하는 사람은 다만 그의 문장이 노련하고 고아하며 묵직하고 격조가 있는 것만 알지, 풍격과 기세에 국한 되지 않고 그 범위와 진척이 곧 옛 문장가와 나란히 견주어도 한결같이 경술의 이취에 근본으로 하여 만년에는 더욱 순일하였음은 알지 못한다. 선생의

5) 자는 자룡(子龍), 상주(尙州) 이안(利安) 출신이다. 당대 5형제 문과급제로 유명했다. 증조부는 박이경(朴而敬)이고, 조부는 박소종(朴紹宗)이며, 부친 박눌(朴訥)의 5남 중 막내이다. 외조부는 김계행(金係行)이다. 1532년(중종 27) 별시 병과 4위로 문과 급제한 후, 관직은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이르렀다.

6) 박손경의 고조 박정저(朴廷著)는 문과에 급제한 뒤에 형조정랑(刑曹正郎)을 지내고 청백(清白)한 관리로서 이름이 났고, 조부 박희민(朴希閔)은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지냈으며, 부친 박성옥(朴成玉)은 문과에 급제한 뒤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지냈다.

7) 『조선왕조실록』,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 44) 6월14일(병인).

품행과 도의를 흠모하는 사람은 다만 힘을 다하여 어버이를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에 성심을 다해 살아서는 봉양하며 죽어서는 장사지내 것에 꼭진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힘을 다해 수고롭게 애쓴 것을 염려할 줄만 알고, 일용지간에 천리가 유행함을 알지 못한다. 어려서부터 배움이 있어서 마음이 넓고 쾌활하며 시원해<sup>8)</sup> 면면마다 개운하고 깨끗했다. 선생의 학문을 흠모하는 사람은 다만 굳게 지키고 실천하여 몸에 체득된 것이 응결되고 다스려져 굳고 확실한 것은 알고, 움직여서 구하면 마땅함에 부합되어 저절로 법과 규범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천하의 이치를 조용히 잠겨 연구하여 환히 내다본 뒤에 그만두어서, 평소 학문을 닦아 지식을 넓이는 노력이 높고 밝은 것은 반드시 알지는 못한다. 선생의 덕을 흠모하는 사람은 다만 강직하고 굳세고 준엄하고 가지런하여 법도가 가슴속에 바르고 엄숙한 것은 알고, 관대하고 포용하고 충직하고 순후하여 불쌍히 여기고 간절하고 지극하여 온화하게 인애함이 항상 있었던 것은 반드시 알지는 못한다. 선생은 단정히 앉아 도를 맛보아서 일찍이 책을 깊어지고 스승을 따른 적이 없었는데, 위로 이을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다. 또 누가 알겠는가 마음과 정신이 융화되고 부합되는 즈음에 고요히 옛 성현과 서로 교분하여 저절로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것이 있어서인지.<sup>9)</sup>

8) 송나라 황정견(黃庭堅)의 '염계시서(濂溪詩序)'에 “용릉(春陵)의 주무숙(周茂叔)은 인품이 매우 고상해서, 마치 광풍제월(光風霽月)처럼 가슴속이 쇠락하기만 하다.”고 평한 내용이 나온다.

9)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卷之二十六, 『序』, 『南野集序』, “世之慕先生文章者, 徒知其老練雅健, 斤量格力, 不囿於風氣, 而不知其範圍步驟, 直與古哲匠并驅者, 一本於經術理趣, 晚益醇如也. 慕先生行誼者, 徒知其竭力事親, 殫誠友弟, 養生喪死, 靡不曲盡, 疑其有所勉強勞苦, 而不知其日用之間, 天理流行. 自有小學中, 光風霽月, 面面而灑落也. 其慕先生之學者, 徒知其持守履踐, 所以體之於身者, 凝定堅確, 不見其動求合宜, 而自不越於規矩繩墨. 若其於天下之理, 默究潛研, 而洞見乃已, 平日博文之工, 極於高明則未必知也. 其慕先生之德者, 徒知其剛毅峻整, 法度森嚴於胸中, 而若其寬宏忠厚, 惻怛懇至, 藹然乎其仁愛之常存則未必知也. 先生端居味道, 未嘗有負笈從師之事, 則以爲是上無所承. 而又孰知其心融神會之際, 默與古聖賢相契, 而自有朝

정종로(鄭宗魯)의 『남야집』 서문에서 박손경의 문장, 행의, 학문, 성품, 사승(師承)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박손경의 문장은 경술(經術)의 이치와 취지에 근본을 두어서 노련하고 풍취가 있고 굳건했다. 무게와 격조의 힘이 풍격과 기세에 국한되지 않아 보통사람은 그 범위와 나아감을 짐작할 수 없었다. 평소 행했던 행의(行誼)는 힘써 억지로 노력하는 수고로움이 없어도 일용지간에 천리가 유행하는 것과 같았다. 학문은 구하면 마땅함에 부합되어 저절로 법과 규범을 넘지 않았고, 평소 삶 속에서 닦고 지식을 넓혀 이치를 조용히 침잠하듯 연구하여 환히 내다본 뒤에 그만두었다. 박손경의 성품은 강직하고 굳세고 준엄하고 법도가 바르고 엄숙하면서도, 관대하고 포용하고 충직하고 순후하고 불쌍히 여기고 간절하고 지극하여 온화하게 인애함이 항상 있어서 덕이 있었다. 박손경은 뚜렷이 스승을 좇아 배우지는 않았지만, 단정히 앉아 도를 맛보는 것처럼 고요히 아침저녁으로 옛 성현과 서로 만나 저절로 마음과 정신이 융화되고 부합되듯 일상에서 정신적 교분을 했다.

이러한 ‘영남삼로’로서의 박손경의 학문적 경향과 위상, 삶의 지향점과 문사적 취향이 후대의 석학 정범조(丁範祖)가 남긴 그의 ‘묘갈명(墓碣銘)’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송나라 주자(朱子)와 이황(李滉)을 학문의 사표로 삼고, 당대 고뇌하고 행동하는 처사로서 부근 지역민을 계몽했다. 또 재목의 고하에 따라 가르침을 저울질하여 후생(後生)들을 가르치고 진척시켜 각자 터득하는 바가 있게 하는 사표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나아가 어렸을 때부터 문사(文辭) 하기를 좋아하여 그 격조가 높아서 옛날의 작자(作者) 아래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은 문사적 취향과 자부심도 드러난다.

후생(後生)들을 가르치고 진척시킴을 좋아하여 재목의 높고 낮음에 인하여 그 가르침을 저울질하여 각자 터득하는 바가 있게 하였다. 어렸



을 적에 문사(文辭) 하기를 좋아하여 그 격조가 높아서 옛날의 작자(作者) 아래로 나가고 싶지 아니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진실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고는 드디어 모두 버리고 가버렸다. 날마다 마음으로 성리서(性理書)를 즐기며 이면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삼으니 사람들이 입언(立言) 하기를 권하자 사양하며 말씀하기를 “송나라의 주부자(朱夫子) 같은 분과 우리 조선조의 이선생 같은 분이 이미 말씀하셨다. 또한 죽히 발표함이 있으랴”라고 하였다. 덕을 날마다 사용하는 말과 동작에 부쳐도 이치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대개 공의 도(道)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효제(孝悌)’일뿐이니, 통달하면 가히 천하를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러나 방백(方伯)의 천거와 암행어사의 상계(狀啓)가 계속 이어져 이름이 나서 특별히 영릉참봉과 동몽교관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후세에 논평을 숭상하는 자는 가히 그의 세대를 볼 수가 있으리라.<sup>10)</sup>

박손경은 집안 대대로 관료문인이었던 탓에 집안의 가업과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처음에는 과거를 염두에 둔 학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형식적인 틀에 짜인 학업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고, 이러한 학문을 계속 한다는 것은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학문 세계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짐을 깨닫게 된다. 이후부터 학문의 근원에 대한 공부에 치중 하며, 자연과 함께 벗하며 이를 묵묵히 실천해 나갔다. 강요와 필요에 의한 학문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저절로 탐구, 수신하여 이해되고 체득되지 않을 때는 깨우칠 때까지 끊임없이 사색했다. 박손경은 문학과 고학(古學)에 뜻

10) 丁範祖, 『海左先生文集』 卷之二十八, 『碣銘』, ‘教官朴公墓碣銘’, “喜訓進後生, 因材高下而衡其教, 使各有所得. 少好爲文辭, 而峻其格, 不欲出古作者下己而曰, 是誠何有於我哉, 遂盡棄去. 日玩心性理書, 爲向裏之工, 人有勸立言者, 謝曰, 若宋夫子若我朝李先生, 旣言之矣. 又有足發耶. 德之寓於日用言動, 而靡不合理者也. 蓋公之道一言蔽曰, 孝悌而已, 而達之則可以優天下矣. 雖然方伯之薦, 直指之啓相繼以聞, 特除英陵參奉童蒙教官, 而皆辭不就. 後之尙論者, 可以觀其世也已.”.

을 두고 산수 자연 간에서 실천 하는 삶을 살았다.

특히 ‘효제(孝悌)’를 몸소 실천하여 지역민의 본이 되었다. 안정복(安鼎福)의 글에 박손경에 관한 일화가 보인다. 박손경의 나이 70이던 임인년에 용궁(龍宮)에 사는 진사 이중장(李仲章)이 찾아갔던 일화를 통해 안정복은 박손경을 행실이 독실하고 효성스럽고 청렴했던 동한(東漢)의 선비로 높이 평가했다. 비록 봉제사와 노모 봉양과 같은 일상의 의절(儀節)에 관한 일화이지만, 이러한 소소한 일화에서 박손경의 평소 삶의 태도와 지향점을 읽어 낼 수 있다. 안정복은 “요즈음 인륜과 풍속이 퇴패(頹敗)한 때에 이처럼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행실이 독실하였으니, 나같이 병들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만나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평했다.<sup>11)</sup>

이런 박손경의 삶은 물질적, 육체적으로 곤궁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운 삶이었다. 이러한 삶의 지향은 필연적으로 지식은 넓어지고 덕망은 더욱 성취되어 당대 ‘삼로(三老)’로 추앙을 받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는 큰 동인이 되었다. 나아가 문학에 대한 관심은 ‘천형’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재현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선생이 은사(隱士)의 정원에 은거하면서 벼슬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아 거둬 벼슬을 내려도 받들지 않았으니, 곧 이는 자신의 뜻을 굳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또 누가 알겠는가 그 재지와 기량, 식견과 경영함을 평소 마음속에 깊이 쌓아 둔 것이 한 세상을 다스릴 만큼 충분히 있어서인지. 대개 선생은 도를 체득하는 것이 무궁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는

11)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卷之十三, 『雜著 橡軒隨筆 下 戶牖雜錄並附』, ‘朴教官孫慶’, “號南野, 肅廟癸巳生, 居醴泉. 有文學薦授職, 不赴. 誠孝篤至, 繼母年纔長一歲, 奉養無違. 家甚貧, 親爨母室, 隨節寒熱, 秤柴以炊, 適其冷暖. 壬寅歲, 其年七十, 龍宮李進士仲章往候之, 寓村舍. 適於月夜, 進候不遇, 蓋往其田採栗根, 將欲爲明日爨親室之地也. 而他人之田, 一不犯手. 此果是東漢篤行孝廉之士也. -中略- 當此倫敦俗敗之際, 而二人者之孝友篤行如是, 顧此病廢, 恨不生前相面也.”

배움을 쉽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채우고 기름이 오래되어 조예가 이미 깊었으나, 항상 스스로 물러나 보지 못한 것처럼 하였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추고 숨기려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득차도 빈 것처럼 하였으니, 후생들은 과거에 문하를 거쳐 간 사람들 가운데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가벼이 교유하고 강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선생을 깊이 아는 사람이 드문 것이 이와 같아서 이다. 깊은 구고(九臯)에서 우는 학 울음소리는<sup>12)</sup> 늦은 뒤에야 비로소 하늘에 들리는 것이니, 하나의 명에 의한 벼슬은 겨우 공변된 의론이 끝내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일 뿐이다. 즉 이는 실로 선비들이 함께 슬퍼해야 할 바이다. 그러나 선생의 성대한 덕과 부유한 대업이 도리어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다만 영화가 밖에서 발하는 것은 위로는 임금의 계책을 도울만하고 아래로는 유학의 도를 선양할만하다. 선생은 이미 가난한 오두막집<sup>13)</sup>에서 늙어 다했고, 또 저술로써 자처하지 않았으니 비록 사이에 지은 것이 있다하더라도 도리어 그 원고가 훼손되었다. 아마도 또한 여가의 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sup>14)</sup>

박손경은 조정의 여러 번에 걸친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은사(隱士)의 정원과 같은 금당곡의 보잘것없는 봉필(蓬葦), 초가에서 가난한 처사의

12) 『詩經』 『小雅』 ‘학명(鶴鳴)’에 “학이 깊은 구덩이에서 맑은 울음 쏟아내니,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도다.[鶴鳴于九臯 聲聞于天]”라는 말이 있다.

13) 봉필(蓬葦)은 오두막의 사립문을 뜻하는 봉문필호(蓬門葦戶)의 준말이다.

14)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卷之二十六, 『序』, ‘南野集序’, “先生高蹈林泉, 芥視軒冕, 徵召再下而不爲應命, 則以爲是固守己志而已. 而又孰知其材器識略平素之所蘊蓄, 有足以經綸一世者存乎. 蓋先生知道體之無窮, 而此學之未易語. 雖其充養之久, 造詣已深, 而常自退然如未見. 一意韜晦, 有若無實若虛, 後生知舊之過於門者, 苟非其人, 未嘗輕加接引而與之講說. 故世之能知先生深者, 其鮮如此. 九臯之鳴, 晚而後始聞于天, 而一命之官, 纔足以見公議之不終泯而已. 則此實儒林之所共慨然者. 然於先生盛德富有之業, 顧何損乎. 獨其英華之發於外者, 上則可以黼黻皇猷, 下則可以闡揚斯道. 而先生既窮老於蓬葦之下, 又不以著述自居, 雖間有所作, 旋毀其稿. 蓋亦視以爲餘事而不足貴故也.”

삶을 지속했다. 그것은 처음 지녔던 자신의 뜻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이다. 박손경의 삶은 구고(九臯)에서 학이 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도를 체득하는 것이 무궁한 것을 알았고, 가벼이 사람을 대하고 강론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에서 금당곡의 박손경을 알아주는 이가 드물었다. 박손경은 비록 채우고 기쁨이 오래되어 조예가 깊었으나, 항상 스스로 물러나 보지 못한 것처럼 하였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금당곡에 자신을 감추고 숨졌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득차도 빈 것처럼 하였다. 서책을 접해서는 능히 그 취지와 뜻을 구명하여 통달한 뒤에라야 그쳤다. 오직 일상에서 고학(古學)에 마음을 다해 정진하여 지식은 더욱 넓어지고 덕망은 더욱 성취되었다. 결국 모든 선진들이 받들어 미칠 수 없다고 말하며 스승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깨달았으며, ‘영남삼로’의 한 사람으로 추앙했다.<sup>15)</sup> 이는 깊은 구고의 학 울음소리가 늦게 비로소 하늘에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하늘은 결국 듣게 된다.

박손경의 행적과 당대의 평가는 당시 국가의 여러 공식 기록에도 나타난다. 처사로 살던 그는 1777년(정조 1) 나이 65세 때에는 학덕이 세상에 알려져 당시 경상감사에 의해 천거되어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제수되었다. 또 1779년(정조 3)에는 어사 황승원(黃昇源)이 문학이 훌륭하며 유림의 종사(宗師)가 될 만하다고 임금에게 보고하여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제수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모두를 노모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영남은 본래 추로(鄒魯)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져서 문학과 행의(行誼)가 모두 훌륭했는데, 그중에 전 교관 최홍원과 전 참봉 박손경이 온 도(道)의 명망이 높은 선비입니다. 일찍이 도신

15) 丁範祖, 『海左先生文集』 卷之二十八, 「碣銘」, ‘敎官朴公墓碣銘’, “甫受書, 能究其旨意通透而後已. 及長治程文應舉, 尋不樂, 告持憲公曰, 自度才不足中時好, 請從吾所好. 持憲公, 奇其志而許之. 於是, 專精古學, 識益博而德益就, 諸先進皆推爲不可及道之師心而悟也.”.

의 천거로 겨우 미관말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곧 바로 체직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사풍(士風)을 흥기시키고 인재를 찾아 수용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를 해조로 하여금 6품으로 조용하게 하여 조정에서 인재를 감별하여 뽑아 장려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하교하기를, “경의 말이 좋다.”하고, 그대로 따랐다.<sup>16)</sup>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은 영남은 본디 선비의 고장이라고 일컬으며, 박손경의 문학과 행실이 훌륭하여 불 만하다고 평했다. 특히 전 교관 최홍원과 박손경 같은 사람은 도내에서 가장 명망 있는 선비라고 언급하고, 당시 영남지역에서의 이들의 위상을 높이 샀다. 그리고 6품의 관직으로 불러 써서 권장하는 모범을 보이기를 요청하고 관철시켰다.<sup>17)</sup>

이처럼 박손경의 학문과 문장은 물론 처사로서의 삶과 태도는 당대 사우(士友)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여러 기록과 평가에 보이듯, 박손경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구고의 학처럼 단힌 삶을 살았다. 처음부터 그는 단지 학식과 견문을 두루 갖춘 한 인간으로, 참된 유가적 인간의 직분을 실행하는 ‘천형(踐形)’을 실천하며 금당곡에서 늙어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교화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땅에 학문이 쇠퇴해 지는 것에 한탄하여 마치 구고에서 외로이 우는 한 마리 학처럼, 고학(古學)에 전심하고 행동하여 참된 인간으로서 당대의 모범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老宿何年關此間	학승은 언제 이 산골 개척할까
一區紺宇動林巒	한 칸 불사 산속에서 울리네
梅香欲炷袈裟遍	단향목 불살라 향기 가사에 배이고
貝葉初開塵尾閒	불경 처음 열려 붓이 한가롭네

16) 『국역 일성록』 정조 6년 임인(1782, 건릉 47) 7월15일(경술).

17) 『조선왕조실록』 정조 6년 임인(1782, 건릉 47) 7월15일(경술).

盛大文章多北客	성대한 문장은 북에서 온 손 많고
禪家衣鉢自西山	선가의 의발은 서산에서 비롯됐네
可憐庠序絃歌地	가련하네 교화의 노랫소리 울리려야 할 땅
壇杏蕭疎戶牖關. <sup>18)</sup>	학문하는 곳 쓸쓸하여 창과 문을 닫네.

위의 시에는 장소감이 중의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유교 교화의 노래 소리가 울려야 할 땅에 불사가 열려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도 내포되어 있다. 이어서 박손경은 마치 옛날 소식(蘇軾)이 항주(杭州)로 귀양 갔을 때 문여가(文與可)<sup>19)</sup>가 그에게 부쳐 보낸 시에 “북쪽 사람이 오거든 세상사 묻지 말고, 서호가 비록 좋으나 시 읊지 마라.[北客若來休問事 西湖雖好莫吟詩]”고 하여, 소동파의 풍자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경계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경계 삼는 의지 속에 금당곡을 서호(西湖)에 비견하여 수려한 장소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에는 ‘금당곡’에 사는 ‘처사 박손경’이 “단향목을 살라 그 향기가 가사에 배이게 하고 하루하루 불사에 늙어가는 학승(學僧)”으로 대체된다. 서호에 비견되는 수려한 경치 속에 불사를 열고 늙어가는 학승처럼 박손경은 금당곡에서 처사로 유가 본연의 인간됨을 찾고 체득하며 늙기를 바랐다. 즉, 시안(詩案)에 걸려들기 쉬우니 도성이 있는 북쪽에서 온 사람에게는 시국에 대해서 묻지 말고 항주(杭州)의 서호 경치가 아무리 좋더라도 읊지 말라는 뜻처럼, 자신도 외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삶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갈구하고 체득해야겠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 것이다.

18)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內院留題 二首 1’.

19) 문여가(文與可)는 송(宋)나라 문동(文同)의 자(字)이다. 이 시는 『鶴林玉露』 卷 10과 『蘇詩補註』 卷50 등에 실려 있다.

### 3. '金塘谷'에 대한 시선과 표상

예천(醴泉) '금당곡(金塘谷)'은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정하려고 했으나, 한강(漢江) 같은 큰물이 없어 아쉬워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금당곡은 조선의 도읍 후보지로 거론됐을 만큼 명당으로 알려졌는데, 남사고의 글에 따르면 “임금의 수레가 미치면 해가 미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조선말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던 이유인(李裕寅)이 어느 날 금당곡에 찾아와 명성황후의 도피처를 이곳으로 결정하고 99칸의 행궁을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예천의 지정학적 특징이 윤상(尹祥)의 기(記)에 잘 나타나 있다. 예천은 한양에서 영남으로 가는 길에 소백산 넘어 남쪽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고을로 동쪽과 서쪽에서 죽령(竹嶺)과 초령(草嶺) 두 재 사이에 끼여 있다. 죽령으로부터 상주(尙州) 낙동(洛東)으로 가는 사람, 초령으로부터 화산(花山)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을을 경유하게 된다. 그래서 사신의 순시(巡視)와 길가는 나그네의 오고 감이 거의 없는 날이 없다.<sup>20)</sup>

지리적으로 예천은 동쪽으로 안동부(安東府) 경계까지 22리, 풍기군(豊基郡) 경계까지 34리, 남쪽은 용궁현(龍宮縣) 경계까지 21리, 서쪽도 용궁현 경계까지 33리, 북쪽은 충청도 단양군(丹陽郡) 경계까지 70리, 서울과의 거리는 4백 98리이다. 본래 신라의 수주현(水酒縣)으로 고려 현종(顯宗) 때에는 안동부에 예속시켰으나, 명종(明宗) 2년에는 태자(太子)의 태(胎)를 이 고을에 장치(藏置)하고 기양(基陽)으로 고쳐서 승격시켜 현령(縣令)으로 하였다. 조선 태종(太宗) 16년에 다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sup>21)</sup>

예천 금당곡은 소백산(小白山)이 저수령(低首嶺)을 넘어 월악산(月岳

20) 尹祥, 『別洞先生集』 卷二, 『記』, 『醴泉客舍東軒重創記』, “醴泉爲郡, 居嶺南初面, 地廣民稠, 東西介于竹草二嶺. 自竹而之商洛, 由草而達花山者, 必經由是邑. 故使華之巡遊, 行旅之往來, 殆無虛日矣.”

2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4권, 『경상도』, ‘예천군’.

山)으로 가는 중간에 남으로 뺀어 만들어진 오미봉(五美峰)을 주산으로 한다. 오미봉은 마치 연꽃처럼 생겼으며, 금당(金塘)은 바로 이 연꽃이 피는 연못 자리다. 마을 지형이 ‘물에 떠있는 연꽃’을 닮아 ‘금당(金塘)’이라 지었고, 그래서 이곳 지형을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고 한다. ‘금당실’, ‘금곡(金谷)’ 등으로도 불리는 ‘금당곡’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이곳의 지세를 보고 인물이 난다고하여 오미봉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전한다. 또 중국의 양양(襄陽) 금곡(金谷)과 지형이 닮아 ‘금곡’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설도 있다. 기록상으로 금당곡에는 15세기 초 감천문씨(甘泉文氏)인 문헌(文獻)이 처음 자리를 잡고 증손자 문억경(文抑馨)의 맏사위 박종린과 둘째사위인 변응녕(邊應寧 1518~1586)이 정착하면서 함양박씨, 예천권씨, 원주변씨 등이 400년 이상 대대로 살았다.

예천 의성포(義城浦) 일대는 큰물이 지면 꼼짝 못하는 지형을 갖고 있다. 이런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 쓰였고, 난리가 일어나면 피란민들이 모여들었다. 금당곡은 전란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전하는, 전란도 피해가는 길지(吉地)이다. 정약용(丁若鏞)도 부친을 모시고 금당곡을 다녀가 시를 남겼다.<sup>22)</sup> 정약용은 금당곡을 다녀오고 그곳의 지세와 풍경을 “금당이란 골짜기 어귀 흰 구름이 이는데, 은거하여 초연히 세상의 정 멀리했네.”라고 표현하여 마치 선계처럼 묘사하고, 세상의 영욕을 멀리하여 진인으로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그렸다.

나아가 “깊은 산 야밤에는 엄중(淹中)의 글을 읽고, 비 내린 뒤 아침에는 농상(隴上)에서 밭을 가네.”라고 밝혀, 금당곡을 ‘엄중’과 ‘농상’에 비유하여 사서오경을 배우고 은일하여 농사를 지으며 참된 유가로서의 몸가짐을 체득하기 적합한 곳으로 묘사했다. ‘엄중’은 지금의 산둥 곡부(曲

22)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詩文集』第一卷, 『陪家君訪朴徵士孫慶金谷幽居』.  
“金塘谷口白雲生, 邁軸超然遠世情, 邴盜尙知王處士, 閩儒皆祖李延平, 深山夜讀淹中籍, 宿雨朝看隴上耕, 駟馬安車今且至, 已聞明主識公名.”



阜)에 있는 공자의 유풍이 오랫동안 전승되었던 곳으로 춘추시대 노(魯) 나라의 마을이다. '농상'은 후한 말의 명사(名士) 방덕공(龐德公)이 형주 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의 간곡한 초빙을 사양하고 현산(峴山)의 남쪽에 살며, 자기는 전야에서 밭을 갈고 처자는 김을 매었다는 데서 나온 말로, 18세기 조선의 박손경 또한 후한의 방덕공의 경우와 같다는 것이다.

또한 “병(邗) 땅의 도적 오히려 왕 처사를 알아보고, 민(閩) 땅의 선비 모두가 이연평(李延平)을 존경했지.”, “사마안거(駟馬安車) 초빙이 이제 또 이르러오니, 임금 이미 소문 들어 공의 이름 아신다네.”라고 하여, 금당곡을 ‘병’과 ‘민’ 땅에 비유하고 박손경을 ‘이연평’에 비견하였다. ‘병’은 춘추시대 정(鄭) 나라 땅으로 지금의 산둥 비현(費縣) 지방이고, ‘민’은 복건성(福建省) 지방이며, 송나라 검포(劍浦) 사람 이연평은 주희(朱熹)의 스승이다. ‘사마안거’는 네 필의 말이 끄는 편안한 수레로, 상고 때 임금이 초야에 있는 현인을 초빙할 때 예우를 극진히 하는 뜻에서 사용했던 것인데, ‘영남삼로’로 칭송을 받아 여러 번 조정의 부름을 받았던 박손경의 행적을 비유한 것이다.

박손경의 문학에 나타나는 금당곡에 관한 그의 시선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경관과 지리적 폐쇄성이 두드러진다. 아래의 시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표상되는 가을의 십승지 ‘금당곡’은 화려한 붉은 성(城)에 비단 장막을 두른 원림(園林)이었다. 비록 초라한 몇 칸의 띠집에 불과하지만 수려한 풍광과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조화에 호사로운 마음이 들었다.

秋風粧點野人家	가을바람에 야인의 집 단장하니
一夜園林滿意奢	한 밤 원림에는 호사로운 마음 가득하네
驪 <sup>23</sup> 珠百斛霜爲露	여의주 백곡 서리처럼 이슬 되었고

23) 판본에 따라 ‘驪’(1802년), ‘麗’(1922년)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1802년 본을 따름.

錦帳千重葉作花	비단 장막 천 겹처럼 단풍은 꽃이 되었네
積氣曉籠滄海日	쌓인 새벽 기운 창해의 해를 감쌌고
輕輝夕擁赤城霞	가볍게 빛나는 석양은 붉은 성 노을을 안았네
超然坐我丹青裏	초연히 나는 단청 속에 앉아
忘卻 <sup>24)</sup> 流光送歲華 <sup>25)</sup>	변화하는 풍광에 세월을 잊어 보내고자 하네.

표상되는 금당곡의 사계는 풍광이 수려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박손경에게 있어서 사회에서 격리되어 때 묻지 않은 청정무구한 이곳은 지향하는 삶, ‘천형’을 실천하기에 최적의 공간이었다. ‘붉은 성[赤城]’으로 표상된 ‘금당곡’은 병과도 미치지 않고 난세에 몸을 숨길만 한 심승지, 달린 공간이다. 사회와 격리되어 청정한 태초의 수려한 풍광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박손경의 시에 표상되는 ‘금당곡’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문학의 대상이 되는 지리 공간, 산수풍광을 표상하는 박손경의 경향과 개략적인 평가가 그의 문집<sup>26)</sup> 소재 『행장』에 보인다. 박손경의 시는 대부분 산수 자연 간의 풍광을 노래하고 친구 간에 수창한 경물시와 조용히 사색하고 완상하면서 읊은 영물시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은 깊고 그윽하고 음조에 따라 문세를 누르고 펼쳐서 조절을 잘하였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어렵고 딱딱하지 않았으며, 조리를 갖추어 번거롭지 않았다. 고시(古詩)는 위진의 시를 배웠으나 그보다 뛰어났으며, 근체시나 절구는 시율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체재에 맞았다.

문장은 깊고 그윽하면서도 기세를 꺾어 기세를 혹은 억누르고 혹은

24) 판본에 따라 ‘卻’(1802년), ‘卻’(1922년)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1802년 본을 따름.

25)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一, ‘紅葉’.

26) 구본(舊本)이 없이 사우(士友)들 집에 흩어져 보관하고 있던 것을 권성익(權聖翊)이 발의하여 1802년(순조 2) 아들 한동(漢東), 종질 한사(漢師) 등이 간행하였다.

펼쳐서 음조(音調)의 높낮이와 강약에 따라 글에서 힘줄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조절(調節)하였다. 예스럽고 쪽 뻗으면서도 어렵고 딱딱하지 않으며, 무난하면서도 진부하지 않았다. 체재와 구분이 자연스레 갖추어져 이어지고 꺾임이 번거롭지 않아 절로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었다. 고시(古詩)는 위진(魏晉)의 시를 배웠으나 이치와 풍취가 그보다 뛰어나 절구에 이르기까지 시율에 구애받지 않았으나 저절로 체재에 맞았다. 마음 속 뜻을 싣고 부여하는 말에 이르러서는 넓고 평평하여 몸과 마음이 무궁한 경지에 이르러 잘 보는 사람은 당연히 자득하게 된다.<sup>27)</sup>

박손경은 문학에 대해 본격적인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다만 위의 「행장」을 비롯한 평가와 시문, 친구 선후배들과 주고받은 편지 글에서 문학에 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문학창작 활동을 매화가 피는 고통에 비유했고, 살이 마르는 고뇌와 같다고 했다. ‘천형’의 경지는 저절로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매화는 저절로 피지 않는다. 초연히 맑은 정신으로 찬바람에 눈꽃이 창을 두드리는 산속 띠집에 벽등을 밝히고 고독하게 앉아 삼경의 추위를 견디고 따스한 아침의 햇살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超忽茅齋獨坐清	초연히 띠 집에 홀로 맑게 앉았는데
玉霰蕭颯已三更	눈꽃 찬바람에 이미 삼경일세
輕添野沼千團暈	사뿐히 들관 못에 앉아 천개 원을 그렸고
暗打山窓萬點鳴	몰래 산속 창을 두드려 만점 울리네
此夜壁燈寒愈靜	이 밤 벽등에 한기는 더해 고요하니
明朝簷日暖堪迎	내일 아침 처마 끝 해는 따뜻하게 비추겠네

27)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十, 「行狀」, “文章則曰, 沈鬱而頓挫也, 抑揚而反復也. 古捷而不隣於艱棘, 平易而不失於陳腐也. 體段自具不煩繩削, 而自有人不及者. 古詩學魏晉, 而理趣過之, 及絕句不拘拘於律令, 自合體裁. 至其託意寄與之語, 平遠容與指歸無窮, 善看者當自得之.”

詩情正似梅花苦  
卻怕人呼太瘦生.<sup>28)</sup>

시심은 바로 매화 피는 고통과 같으니  
도리어 사람 비쩍 마를까 두렵네.

그는 금당곡의 수려한 지세와 풍광을 마치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듯 묘사했다. 화화도 그렇듯 산수풍광을 그려내는 문학작품은 강한 부감경(俯瞰景)을 이용하여 스케일이 큰 풍경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감경 자체가 문학 구성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산수 와유의 사상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의 와유적 지각은 소요의 즐거움을 문학작품에 투영하는 시화 일치(詩畫一致)라고 하는 그 장소의 흥을 돋우기 위한 놀이에 의해 고양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실제 공간의 풍경 자체가 가상의 소요를 유발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손경의 경우도 금당곡을 표상하는 기교면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원래 승지(勝地)란 경치가 좋은 곳, 또는 지형이 뛰어난 곳을 말하는데, 특히 우리의 경우는 흔히 굽주림과 전쟁을 면할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한다. 박손경에 의해 표상되는 금당곡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공간성을 충분히 함유한 것으로 드러난다. 즉, 청정무구한 수려한 풍광에 지리적 폐쇄성을 동시에 지녔다. 금당곡의 산세는 두 개의 옥순을 뽑아 들어 올린듯했고, 지세는 트여서 북두성 빛이 아득하게 빛났다.<sup>29)</sup> 또 쌍 수레 바퀴가 구르듯하고, 하늘빛은 한 필 비단을 펼친듯하였다. 시야 앞으로 가로 놓인 산은 균색함을 면하기 위해 흐르는 시선에 짐짓 가림 막을 만들었다. 멀리 그림자 남긴 소나무, 봉우리 뒤로 드리워진 저녁노을과 깊은 숲에서는 백년을 살아도 늙지 않을 듯하였다.<sup>30)</sup>

28)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一, ‘雪夜口占’.

29)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雙嶽留題’, “雙抽玉筍勢欲浮, 斗光彬影共悠悠, 何年西北支傾後, 解爾長空萬古愁.”

30)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一, ‘寓直洞’, “峽勢雙輪轉, 天光匹練斜, 劈開那免窄, 流跳放生遮, 松迥留殘照, 峰陰帶落霞, 深林春不老, 應有晚開花.”

千種山花百種禽  
和清含雨各春心  
樓中倦客渾無賴  
臥廳寒松自古今.<sup>31)</sup>

천 가지 산 꽃 백 가지 새들  
화청하게 비 머금어 제각각 봄 내음  
누각의 게으른 나그네 흐려 기댈 곳 없는데  
대청에 누운 찬 소나무는 옛날 그대로.  
(봄)

西山漠漠響雷車  
洗藥苔溪日影虛  
歸到小堂人不在  
入簾斜雨急移書.<sup>32)</sup>

서산 어둑어둑 하여 천둥 번개 울리니  
약초 씻는 이끼 긴 개울엔 해 그림자 비었네  
작은 집에 돌아오니 사람은 간 곳 없고  
발 속 비껴드는 비에 급히 책을 옮기네.  
(여름)

草屋蕭蕭迥出皐  
清霜一夜冷侵袍  
牕前十月香初動  
黃菊今年節更高.<sup>33)</sup>

초가 집 쓸쓸해 멀리 언덕 보이고  
맑은 서리 밤새 차갑게 옷 속 스미네  
창밖에는 시월의 향기 비로소 풍기니  
노란 국화 금년에는 절개 더욱 높네.  
(가을)

冥雲低冪趁歸鴉  
茅屋微明隱月華  
病鶴正愁今夜雪  
寒梅猶似去年花  
冰敲鐵研噓生水  
媛到茗盃餐當霞

검은 구름 낮게 덮어 돌아가는 까마귀 쫓고  
띠집은 미명에 은은한 달빛 빛나네  
병든 학 참으로 오늘밤 눈 걱정되는데  
차가운 매화 오히려 작년 꽃 같네  
얼음으로 쇠 베투 두드려 입김 불어 물 만  
들고  
따뜻한 찻잔 음식에는 맛있는 술 마땅하네

31)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希夷菴謾題'.

32)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一, '卽事'.

33)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十月始見菊'.

兒童讀罷開門見  
已道牆東折竹多.<sup>34)</sup>

아이는 책 읽기 그만두고 문 열고 들어와  
담장 동쪽 꺾인 대나무 많다 이르네.  
(겨울)

위의 시들에는 금당곡의 사계가 펼쳐진다. 인간과 자연이 일체가 되는 융화된 감응의 세계가 전개되고 있다. 금당곡의 사계는 아름다웠고, 때에 맞는 풍취가 있었다. 봄이면 인적 드문 산골 개울가에 홀로 고요히 꽃이 피고, 가련한 한 쌍의 호랑나비만 나풀나풀 산봉우리 넘어오는 곳이다.<sup>35)</sup> 비록 박손경은 몸은 늙어 누각의 게으른 나그네처럼 느리고 정신은 흐리지만, 굳은 뜻은 대청에 누운 찬 소나무처럼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다. 여름이면 뒷산 용문사(龍門寺)<sup>36)</sup>에 머물러 소요하면서 소나무 끝에 눈물 흘리듯 이지러져 하얗게 뜬 밝은 달을 보고 상방의 새벽 맑은 종소리를 들으며, 눈과 귀를 금당곡의 풍광에 내맡겨 감응하기에 충분했다.<sup>37)</sup> 비록 산골 작은 초막에 천등번개치고 거센 비가 몰아쳐도 책읽기 충분하고 한적한 곳이다.

가을은 밤새 맑은 서리가 초가를 덮어 쓸쓸함이 감도지만, 시월의 향기가 물씬하여 ‘영남삼로’로서 ‘천형’을 실천하여 유가의 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좋았다. 노란 국화의 절개는 세월이 가고 시련이 오면 그 색과 향기를 더하듯 박손경의 절개 또한 더욱 높아질 뿐이다. 겨울은 대나무가 꺾일 만큼 눈이 내리고 달빛 빛나는 띠 집

34)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一, ‘雪中卽事 二首’ 1.

35)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澗邊花’, “寂寂澗邊花, 無人花自開, 可憐雙蛺蝶, 款款度崗來.”

36) 용문사(龍門寺)는 870년(신라 경문왕 10년) 두운선사(杜雲禪師)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온다.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를 정벌하러 내려가다 이 사찰을 찾았으나 운무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치 못했는데, 어디선가 청룡 두 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하였다 하여 ‘용문사’라 불렀다고 한다.

37)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龍寺雨後’, “缺月松頭欲漏明, 上房鐘磬曉來清, 雲消雨歇須臾事, 依舊青天白日生.”

에서 얼음을 두드려 먹을 갈며 술 한 잔 하는 운치가 있었다. 산골 띠집에서 늙어가는 박손경은 비록 하루를 걱정하는 늙고 병든 학이지만, 시련이 오면 차라리 담장의 대나무처럼 꺾일지언정 매화와 쇠 벼루<sup>38)</sup>처럼 처음 지냈던 마음속 뜻을 고쳐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금당곡의 사계는 '꽃'과 '새', '비'와 '책', '서리'와 '국화', '눈'과 '매화'로 대비되고, '소나무', '대나무', '쇠 벼루'로 상징되어 표상된다. 나름의 물씬한 사계의 풍경 안에서 박손경은 봄날엔 소나무처럼, 여름날엔 독서를 즐기고, 가을엔 국화처럼 절개를 고고히 하고, 겨울엔 차가운 겨울바람 곁에도 변치 않는 매화와 같았다.

#### 4. '金塘谷', '踐形'의 공간

박손경은 닫힌 공간 십승지 '금당곡'에서 처사로 닫힌 삶을 살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닫힌 공간 금당곡에서의 박손경의 닫힌 삶에 의해 '금당곡'은 영남 문화주체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재현되었다. 박손경에게 있어서 문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형(踐形)'을 실천해 참된 인간의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자연스런 행위이다. 자연 공간 '금당곡'은 당대 단순히 청정무구하게 표상되고 알려진 수려한 풍광의 폐쇄적 지리 공간 십승지가 아니라, 실천하는 18세기 '영남삼로' 박손경이 지향하고 재현해 내는 심상공간(心象空間)이며, 문화공간이다.

38) “오대(五代) 시대 진(晉)의 상유한(桑維翰)이 일찍이 진사(進士)에 응시했을 때 시관(試官)이 그의 성(姓) 자가 '상(喪)'과 동음인 것을 꺼려 그를 빼 버렸으므로, 후자가 그에게 굳이 진사 급제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달리 벼슬을 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자, 그가 분개하여 '일출부상부(日出扶桑賦)'를 지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또 무쇠 벼루를 주조하여 남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벼루가 다 닳거든 마음을 바꿔 다른 길로 벼슬을 구하겠다.” 하고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끝내 진사에 급제하였다는 것에서 유래하여, 공부가 깊음을 의미한다.”, 『新五代史』 卷29, 『晉臣列傳』, '桑維翰'.

인간은 개별적인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가상적인 행동, 혹은 관능적인 인식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공간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생각해 보면 별개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표상’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표상을 표상이게끔 만들어주는 사회문화적 코드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즉, 표상을 표상으로 떠받치는 코드와 그 사회적인 유통, 순환의 시스템, 이른바 표상 시스템(representational system)이 변용을 겪는다는 말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관습적이고 제한적인 표현상의 환경, 즉 표현의 가능적 경험을 벗어난 삶이란 불가능한데, 바로 이러한 경험의 지평이 어느 순간 변용되어 다른 환경으로 이행한 것이다.<sup>39)</sup>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문화적인 변동에 따라 표상 시스템에 있어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이 변화하면서 표상을 표상으로 성립시키는 대상의 시각과 그 전달의 양태를 규정하는 코드에 변용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변용을 야기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 박손경의 내부와 외부 환경에 있을 것이다. ‘사회’란 표상 시스템을 내포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을 산출하는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과 동일한 의미라면, 특정 시대의 특정 문화를 가진 사회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의해 규정되는 셈이다.<sup>40)</sup> 결국 사회는 자신이 내포하는 표상 시스템 즉,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표상 시스템이 변용되었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변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영남’, ‘예천’, ‘십승지’, ‘금당곡’의 변화, 다시 말해 이곳이 새로운 의미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재현된 것은 인간 박손경의 내적 지향과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39) 이효덕 지음/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화』, 소명출판사, 2002, 19쪽.

40) 이효덕 지음/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화』, 소명출판사, 2002, 20쪽.



박손경이 인식하는 문학과 문화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진구(李鎭九)와 주고받은 '천성(天性)' 논쟁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주자(朱子)는 '시지소이작(詩之所以作)'에서 "사물에 반응하여 욕망이 일고, 욕망이 생기면 생각을 하게 되며, 생각을 하면 말로서 하게 된다. 말로서 다할 수 없으면 자연히 음률과 연주로서 하게 되니, 이것이 시를 짓는 원인과 이유이다."라고 했다. 문학과 창작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박손경도 기본적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자가 도(道)에 뜻을 두고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달(達)하지 못하는 것을 물과 웅덩이, 군자와 문장의 관계로 비유하여 곧 한 가지의 재주와 기예로 문장을 이루는 것은 마치 물이 구덩이를 채우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웅덩이는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물이 이르고 이르지 않는 것 또한 같지 않으니 도(道)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주해(註解) 가운데 "이에 달함이 있고 저에 통함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선유들이 '피차' 두 글자 같은 것들에 신인과 선인의 계급을 두었는데, 신인과 선인에 도달한 자가 과연 성신의 지위에 능통하다면, 곧 한잔의 물이 구덩이를 나와 과연 바다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시경』에 "밭돋움하는 저 직녀성 종일 일곱 번을 바꾸네. 비록 일곱 번 바꾸나 보답할 문장 만들지 못했네.[跂彼織女 終日七襄 雖則七襄 不成報章.]"라는 구절이 있는데, 군자가 문장을 이루는 것에 비유하자면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이) 하나의 기예와 하나의 재주로 문장을 이루는 것은 진실로 물이 웅덩이를 채우는 것이라 일컬을 만하다. 다만 이곳에 인용하지 못하는 것은 종지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맹자가 단지 군자의 도를 말한 것은 근본과 근원이 있어서 쌓여서 능히 도달하는 뜻을 말한 것인데, 지금 한가지의 재주와 한가지의 기예를 인용하여 근본이 없고 근원이 없어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물과 같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모든 말을 섞어서 잡스럽게 하는 것이니, 이는 독서에서 가장 꺼리는 바이다. 마음을 비워서 구하

기를 바란다. 소주(小註)에 대해 말한 것 또한 잘못 본 것 같다. 소주의 본뜻은 선인과 신인이 쌓아서 문장을 이룬다면 더욱 신실한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와 같으니 미루어 본 연후에 부합함에 이를 수 있다. 반대로 ‘선신(善信)’에 ‘상이하달(上已下達)’ 글자를 가져와 비유한다면 글자의 뜻에서 멀어질까 두려우니 께뚫어 본 것이 아니다. 또 마치 주자가 조각과 부분을 이루어 문리가 있었던 것과 같다. 문장을 일컫는다면 이 ‘장(章)’이라는 글자는 ‘보장(報章)’의 장과 처음부터 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또한 저기에서 취하여 그 뜻에 만족할 필요는 없다. 단지 군자의 도는 그 공정을 따르고 조각과 부분의 문장이 있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sup>41)</sup>(박)

주자의 관점에 더해 박손경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맹자(孟子)가 말한 것처럼 근본과 근원이 있어서 쌓여서 신실한 아름다움이 있는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진구가 『맹자』에서 “군자가 도(道)에 뜻을 두고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하는 것을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물”에 비유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한 가지 재주로 문장을 이루는 것이 물이 웅덩이를 채우는 것과 같은지에 대해 묻자 박손경은 한 가지 재주와 기예로 문장을 이루는 것도 물이 웅덩이를 채우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만 군자의 도는 공정을 따르고

41)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四, 『書』, ‘答李聖有 鎮九 別紙’, “君子之道, 不成章不達, 以水之科, 比君子之章, 則一才一藝之成章者, 如水之盈坎耶. 科有大小, 而水之達不達亦不同, 道亦如是耶. 註解中有達於此通於彼之語, 而先儒以彼此二字屬之於信善階級達於信善者, 果能通聖神之地位, 則勺水出坎, 果能達海耶. 詩曰, 不成報章 以織女之成章, 比之君子之成章, 則未知何如. 一藝一才之成章者, 固亦可謂盈科. 但不可引之於此, 以亂宗旨耳. 孟子但言君子之道, 有本有源積而能達之義, 而今引一才一藝, 及他無本無源不足以自達之水, 叢雜爲說, 此最讀書之大忌. 幸虛心以求之. 小註說亦恐錯看. 小註本言, 善信積而成章, 則可以達於尤實之美. 節節如此, 推去然後, 可達於化云. 而來諭卻於善信上已下達字, 恐於遠字義, 未看透也. 且如朱子以成片段, 有文理者. 謂之章, 則此章字與報章之章, 未始不同. 但亦不必有取於彼而後, 其義方足也. 只言君子之道, 隨其工程, 而有片段文章耳.”.

조각과 부분의 문장이 있을 뿐인데, 마치 주자가 조각과 부분을 이루어 문리가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독서와 비유로 인해서 맹자가 말한 종지(宗旨)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손경은 인격의 주체로서의 사람, '인간'에 대해서는 보다 뚜렷한 도덕적 준칙과 명확한 인식 기준을 지녔다. '시서(詩序)'에서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성(性)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진구가 "성은 움직임이 없으니 성이 아니고 정(情)인듯하다"고 언급하자, 박손경은 정이 발하는 것을 가볍게 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맹자』 「진심장」에서 "형(形)과 색(色)은 천성(天性)"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진구가 "기질(氣質)의 성인 듯하다"고 언급하자, 형과 색이 천성이란 것이 아니고 형과 색에 갖추어진 이치가 천성이라고 하였다.

'시서(詩序)'에서 이르기를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성(性)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은 일찍이 하고자하는 바가 없으니 곧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정(情)인 듯한데, 곧 성이 하고자하는 것이라 일컫는 것은 어째서인가?(이)

본래 『악기(樂記)』의 말로 '시서'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를 배우고자한 것은 마땅히 가볍게 본 것이다. 무릇 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욕(欲)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선배들에 의해 이미 정해진 논의가 있다. (박)

『맹자』에서 형(形)과 색(色)은 천성(天性)이다. 형이 있는 후에 기질의 성이 있는 것이니 사람에게 형과 색이 있는 것은 속해 있는 기질의 성이 있는 것과 유사하니 천성이라고 일컫는 것 또한 의심할만 하지 않은가? (이)

형색은 천성이 아니다. 형색 위의 갖추어진 바의 이치가 천성이다. 손발로 말하면 곧 손발은 형과 같다. 손의 공손히 함과 발의 무겁게 여김, 이것은 이치이다. 사물에 미루어 헤아린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집주가 명백할 뿐만이 아니다.<sup>42)</sup>(박)

박손경은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것’, 곧 『맹자』 『진심장』의 ‘천형(踐形)’을 사람의 직분으로 이해했다.<sup>43)</sup> 『맹자』 장구를 들어 “형과 색이 천성”이라고 한 이진구의 언급에 대해 박손경은 집주(集註)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그 위에 갖추어진 이치가 천성이라 하였다. 비록 성인만이 형체가 있으면서도 그 이치를 다하지만, 박손경은 이것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실천하는 것이 직분이라고 보았고, 이 직분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행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형체가 있으나 그 이치를 다하지 못하므로 그 형체를 실천하지 못한다. 사람은 천지의 정기(正氣)를 가지고 태어나 만물과 같지 않은데, 이미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의 도리를 다한 뒤에 그 이름에 걸맞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학과 그 창작 주체로서의 참된 인간의 모습에 대한 태도는 그의 삶과 ‘금당곡’을 재현한 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정종로는 『남야집』 서문에서 박손경의 몸에 응결되고 체득된 굳게 지키고 실천하는[持守履踐] 삶을 높게 평가하고, 여기에서 당대 사람들이 ‘영남삼로’로 그를 흠모하는 원인을 찾았다. 정범조는 “영남의 금곡에 은덕군자가 있는데 소문을 듣고 비록 문하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들지는 못하였으나, 풍문을 향하여 사모함을 기울임은 책 속의 사람과 같았다.”고 평해, ‘천형’을 실

42)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四, 『書』, ‘答李聖有 鎮九 別紙’, “詩序曰, 感於物而動性之欲也. 性未嘗有欲 則感物而動者. 似是情也, 而直謂之性之欲者何歟. 本樂記語, 而序中引之, 此欲學 當輕看. 凡情之發者, 皆可謂之欲也. 先儒已有定論矣. 孟子曰, 形色天性也. 形而後有氣質之性, 人之有形有色, 似當屬之氣質之性, 而謂之天性者, 不亦可疑乎. 形色非天性也. 形色上所具之理, 乃天性也. 如以手足言, 則手足形也. 手之當恭足之當重, 卽是理也. 推之事物無不然, 集註不啻明白矣.”

43) “‘천형(踐形)’에서 ‘形’은 플라톤의 이데아(Idea)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며, 인간의 혼란스러운 현상계를 교화하려는 노력의 근원의 존재만이 실천 가능한 것으로 설명된다.”, (허성도, 『孟子的 形色論』, 『중국문학』 제78집, 한국중국어문화회, 2014, 36~39쪽.) 다만 박손경은 ‘천형’의 ‘踐’을 손석(孫奭)의 소(疏)에 보듯이 ‘가능성으로서의 실천’으로 이해한 듯하다.

천하는 영남의 처사 박손경에 대해 높이 평가 했다.

박손경의 문학에 재현된 금당곡은 '일상의 공간', '교유·교화의 공간'으로 '천형(踐形)의 실천 공간'이 구체화 된다. 결과적으로 시대의 참된 인간의 모습, 지역민의 올바른 표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가는 철저한 '진인(眞人)'의 '심상공간'이며, 열려 있는 영남 문화주체들의 문화공간이다. 세상에 '금당곡'은 풍광이 아름다운 십승지로 이름나 있지만, 그의 시 속에 재현되는 '금당곡'은 한 인간으로서 참된 모습을 실현해 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다.

從古書生計易違	예로부터 서생의 계획 어긋나기 쉬우니
閒愁終不在寒饑	한가한 근심 끝내 춥고 배고픔에 있지 않네
中原王氣無消息	중원의 제왕의 기운 소식 없고
川蜀朝廷有是非	천축 머나먼 조정 시비만 있네
相馬久知輕瘦骨 <sup>44)</sup>	말 분간함 예부터 알아 여윈 몸 가벼이 여기니
操琴誰復賞天機	거문고 잡고 누가 다시 천기를 맞볼까
年來慣作煙霞客	해가 감에 산골 나그네 삶 익숙해지고
學得山歌弄翠微	산속 노래 배우고자 하여 푸른 산 희롱하네.
百丈蒼崖隱小廬	백길 높은 절벽 작은 여막에 숨어

44) “구방고(九方臯)는 진(秦) 나라 사람으로 말 상(相)을 잘 보았다. 일찍이 백락(伯樂)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진목공(秦穆公)의 명을 받고 말을 구하러 나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왔기에, “어떤 말인가.”하니, “암컷이고 털빛은 누르니다.” 하였다. 사람을 시켜 말을 몰고 온즉 수컷이고 흑색이었다. 목공이 백락을 불러, “말을 구해 놓았다는 사람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황색인지 흑색인지도 모르니 어찌 좋은 말을 알아보았겠는가.” 하였다. 백락이, “구방고는 말의 상을 보는데 천기(天機)만을 보아, 그 정한 것만 얻고 추한 것은 버리며, 내면의 것을 중시하고 외면의 것은 버려 암수와 색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잊은 것입니다.” 하였다.” 『列子』, 『說符』.

柳門苔巷劣容車  
 千林積翠棲山雨  
 晚稻微涼散野渠  
 老去已知天下事  
 閒來還有古人書  
 中原蕭艾何須問  
 滿筯香蔬且當魚.

벼들 문 이끼 낀 거리 수레 다니기도 좁네  
 우거진 숲 푸르름 더한 곳에 산비 내려  
 늦은 벼 서늘한 기운 들 도랑에 흩어졌네  
 늙어감에 이미 천하의 일 알아  
 한가함에 도리어 옛사람의 책 있네  
 중원의 잡초 무엇 물을게 있으리  
 젓가락 가득 향기로운 채소에 물고기 있는데.

雨後輕涼透薄絺  
 冷然磯畔立多時  
 溪居曲曲開成井  
 柳岸家家種作籬  
 詩爲境酬如宿債  
 書從人借似新知  
 閒中漸覺機心盡  
 縱有魚竿不理絲.

비온 뒤 서늘한 기운 얇은 갈포에 스며  
 싸늘하게 강둑에 서있을 때 많네  
 개울가 집들 골골이 우물 만들었고  
 벼들 언덕 집집마다 씨 뿌려 울타리 만들었네  
 시로 경계 읊는 것 마치 오랜 빚 같고  
 책 남에게 빌려 마치 새로운 지식 같네.  
 한가한 가운데 점점 기심 다함 알아서  
 비록 고기 있어도 낚싯대에 실 드리우지 못  
 하네.

寒食端陽次第過  
 眼前光景急如梭  
 音書漢北春全少  
 樵牧城西暮更多  
 峽裏秋千知節序  
 隣家香火上山坡  
 兌時但道佳辰好  
 不信于今淚若河.<sup>45)</sup>

한식 단오 차례로 지나가니  
 눈 앞 광경 벼들 북처럼 급하네  
 한수 북에서 오는 소식에 봄은 짧고  
 성 서쪽 초부 목동 저녁은 다시 길어  
 산 속 가을 깊어 계절 순서 알겠고  
 인가의 향불은 산언덕에 오르네  
 기쁠 때 단지 좋은 시절 얘기하고  
 눈물이 강 같을 줄은 몰랐네.

45)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一, ‘明日獨行至小溪續成古詩 寓中感興 四首’.

금당곡은 버들 문에 거리에 이끼가 낄 정도로 수레조차 다니기도 좁은 곳이며, 백 길의 높은 절벽 사이의 작은 여막에 숨어 사는 곳이다. 수려한 풍광의 금당곡이지만, 이 공간을 대하는 박손경의 시정(詩情) 묘사는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삶의 공간과 동떨어진 감미로운 자연만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 위의 시 '우중감흥사수(寓中感興四首)'에는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첫 수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하게 되는 세상사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묻어낸다. 그러나 백락(伯樂)처럼 그 안을 얻었으면 밖은 잊어서[其內而忘其外] 천기를 맛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보인다. 해가 갈수록 산골 삶에 익숙해지고, 늙어감에 이미 천하의 일을 다 알아 한가하여 도리어 시를 읊고 옛사람의 책을 읽는다. 젓가락 가득 향기로운 채소와 물고기 있어 중원의 좋은 나물 묻고 찾을 것도 없었다.

그 가운데 박손경은 마치 굴원(屈原)처럼 행동을 고고하게 하여 서늘한 기운이 스미는 얇은 갈포를 입고 싸늘하게 강둑에 서있을 때가 많았다. 한가한 산골 처사의 삶에 무얼 바라는 기심도 다해서 없다. 비록 고기 있어도 낚시대에 실 드리우고 낚지도 않는다. 산속이라서 봄여름 좋은 시절은 짧고 가을겨울은 깊다. 산 깊은 금당곡에 밤이 들면 그는 늦도록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는다. 방은 정돈되어 단출하고 마음은 한가하여 한 가지 근심도 없다. 때로는 거울을 보고 용모를 새로이 하여 옥 거문고에 소리 내고자 단음을 고른다. 한 때의 좋음에 의지하지 않고 정(靜)할 때에 경(敬)하여 항상 천지귀신(天地鬼神)이 강림하고 있음을 생각하여<sup>46)</sup>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동(動)할 때에 경하여 보고 들음, 얼굴빛과 모양, 말과 일, 의심과 분함, 언음에서부터 일일이 성찰해서 외물을 따라가지 않게 하였다. 비록 천만인의 속에 있더라도 항상 자신이 있음을 알고 경을 잡아 지켰다.<sup>47)</sup>

46) “노재(魯齋) 허형(許衡)이 “靜而敬, 常念天地鬼神臨之, 不敢少忽. 動而敬, 自視聽色貌言事疑忿得一一省察, 不要逐物去了. 雖在千萬人中, 常知有己. 此持敬之大略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心經』 卷3.

47)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一, ‘山居有感’, “空山永夜一燈深, 讀罷床書自整襟,

사실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특정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풍경에 관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아래의 시는 산 속 삶의 표상이다. 표면적으로 금당곡의 풍경과 그 속에서서의 인간 박손경의 삶이 그려진다.

客夢苦短夜苦長	나그네 꿈속 시름 짧지만 밤 시름 길어
僮僕鼾睡主人起	종아이 코 고는 소리에 주인 일어나네
起來茅簷雞喔喔	깨어보니 띠집 처마에서 닭 울어대고
燈光眼花何旖旎	등불 빛 눈에서 아른아른 어찌 펄럭이나
盤中氤氳豆間黍	반상이 풍성하여 콩 사이 기장이고
山城白酒醇且旨	산성의 흰 술 순하고 맛 좋네
久客煩人亦已多	오랜 손님 사람 번거롭게 하고 또 많아
每對晨炊愧爨婢	매일 새벽 밥 장만 볼 때는 아낙에게 부끄럽네
出門慇懃謝主去	문밖에 나가 은근히 주인은 가는 것 인사하고
相送莫須過溪澗	서로 전송하여 개울 넘지 않기 바라네
客子行裝一驢足	손의 행장 한 마리 나귀면 족하니
書箱布被隨鳥凡 <sup>48)</sup>	책 상자에 베옷만이 벗을 따르네.
況復山谿月皎皎	하물며 다시 산속 계곡에 달은 밝아
不勞主人念行李	주인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 단뭇짐 생각하네
林端日出迷回顧	숲 끝에서 해 뜨니 돌아보기 어지러운데
別村寒春鳴漸瀟	외진 산골 찬 봄은 새소리 점점 가까워지네

室靜更無餘物在, 心間不許一愁侵, 撥來古鏡開新面, 喚欲瑤琴理斷音, 莫倚片時消息好, 直須長對鬼神臨.”

48) 범조는 ‘새 봉[鳳]’자를 파자(破字)한 모양인데, 옛날 여안(呂安)이 친구 혜강(嵇康)을 찾아갔더니 그는 없고, 대신 그 형 혜희(嵇喜)가 반가이 나와 맞이하므로, 문 위에 ‘봉(鳳)’자를 써 놓고 돌아갔다. 봉이 아니라 범조, 곧 보통 새라는 뜻으로, 혜희를 폄하하는 말인데 친구 방문의 고사로 흔히 쓰인다.



曉田石崖無多佳	새벽 밭 돌 언덕은 아름다움 많지 않으니
念茲山戶少生理	산속 집 살아갈 길 적은 것 걱정하네
前行隱隱有人語	앞길에 은은히 사람소리 있어
應知賣薪趁早市	응당 땀감 팔로 이른 시장 가는 줄 알겠네
莫說有求與無求	구함과 구하지 않음 말하지 말게
人生役役何時已. <sup>49)</sup>	인생 고단함 어느 때나 그칠까.

박손경의 장소감<sup>50)</sup>에 '금당곡'은 '성(城)'으로 인식되고, 자주 그렇게 표상된다. 위의 시에서도 '산성'으로 표상된다. 밤이 긴 깊은 산성 떠집 생활은 웅색하여 적은 살아갈 길 걱정에 몸은 점점 노쇠해졌다. 하지만 그런대로 산골 나름의 소박한 풍취가 있었고, 오고기는 벗 또한 끊이지 않았다. 비록 콩에 기장이 상차림의 전부이지만, 순한 흰 술을 더하여 풍성하게 손님을 접대한다. 겉으로 표상된 이러한 모든 모습은 따지고 보면 민간의 일상적 삶이다. 실생활에서 지각되는 공간이나 물체는 우리들의 행동, 또는 가상의 행동과 결부된 다양한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이를 '공간의 조작적 의미(manipulative meaning)'라고 한다.<sup>51)</sup> 위에 표상된 산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은 곧 사람에 따라 참된 인간의 직분인 '천형'을 위해서는 겪어야 하는 실천이며, 재현된 '처사'의 심상공간이다.

언어는 시각예술과 마찬가지로 풍경의 집단표상을 밖으로 드러낸다. 그것도 서경적 시가 등의 언어예술뿐만 아니라 자연현상, 지세(地勢) 및 지상(地相) 등 여러 구조물 등을 표현하는 많은 일상어들이 그대로 집단에 공유되는 중요한 풍경 표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어원 속

49)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一, '自仙溪移寓曉行'.

50) “‘장소감’은 서로 상이한 장소나 장소의 정체성을 구분해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장소는 인간 의도의 산물이며, 인간 활동을 위한 의미로 가득한 복합성을 지닌다.”,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식』, 논형, 2005, 145~148쪽).

51) 나카무라요시오/ 김재호 옮김, 『풍경학입문』, 도서출판 문중, 2008, 128쪽.

에서 그런 풍경을 체험하는 마음의 원향(原鄉)을 찾아내고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탐색함으로써 풍경 체험의 미묘한 차이를 정밀하게 추측, 계량할 수 있다. 18세기 당대 ‘영남삼로’로 추앙받던 박손경에게 있어 ‘금당곡’은 지역의 선비들과 어울리고 교유하며, 유가의 본 모습을 체득하고 ‘친형’을 실천하여 지역민을 교화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漳客三春蠟屐沈	장주(漳州)의 나그네 늦봄이라 나막신 <sup>52)</sup> 젖고
柳條隨意過墻陰	버들가지 늘어져 담장 넘어 그늘지네
偶同麋鹿來空谷	우연히 함께 고라니 사슴 빈 골짜기서 내려와
暫逐蕘樵上碧岑	잠시 약초꾼 나무꾼 쫓다가 푸른 산으로 오 르네
泛草輕香風遡麝	사향노루 바람 거슬러 초목 가득한 은은한 향기
近人淸晝葉藏禽	나뭇잎에 숨은 새 사람 가까이 맑게 지저귀네
飄然一舉峰頭鶴	푸드득 봉우리 위로 학 한 마리 날아오르니
見爾應牽萬里心 <sup>53)</sup>	그대를 보니 만 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네.

박손경에게 금당곡은 주자(朱子)의 장주(漳州)<sup>54)</sup> 같은 공간이다. 주자는 장주의 지방관으로 부임해서 그곳의 등고산(登高山)에 있는 임장대(臨漳臺)에 서원을 세워 공자(孔子)를 위시한 선현들을 제사하고 강학(講學)했다. 금당곡은 고라니 사슴 약초꾼 나무꾼이 드나드는 곳이다. 또 사향노루, 바람 거슬러 초목 가득 은은한 향기 나고, 나무 사이 숨은 새

52) 송(宋)나라 때의 문인으로 풍류가 고상했던 사영운(謝靈運)은 특히 깊고 험준한 명산을 오르기 좋아하여 매양 밀랍을 칠한 나막신[蠟屐]을 신고 등산했다고 한다.

53)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住草澗歸路登山椒有作’.

54) 순희 16년(1189) 주자가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용계현(龍溪縣)인 장주(漳州)의 지방관으로 부임해서 그곳의 등고산(登高山)에 있는 임장대(臨漳臺)에 서원을 세워 공자(孔子)를 위시한 선현들을 제사하고 강학했다.

가 사람 가까이 맑게 지저귀는 곳이다. 하지만 겉으로 표상되는 것과 달리 박손경은 주자가 장주에서 했던 것처럼 만 리 먼 곳의 마음을 끌어와 우뚝 솟은 봉우리 위 한 마리 학처럼 날아오르려는 마음을 지녔다.

금당곡은 서울과는 먼 영남의 북쪽 끝 지역이다. 아래의 시 마지막 구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박손경의 의식 속에 금당곡은 지리적으로 십승지라는 장소성<sup>55)</sup>이 남아있다. 이곳은 눈이 오면 밤새 눈이 쌓이고, 천지에 눈꽃이 피는 설국이다. 그러나 한 마리 학처럼 홀로 새벽을 지키는 곳이며, 한 밤의 고행 속에 매화가 피는 곳이다. 유가 본연의 인간형을 만들어가는 '처사'로서 지역민과 교유하고 교화하는 데에는 영(郢), 즉 초(楚)나라 서울의 백설(白雪), 양춘(陽春)과 같은 따라 부르기 어려운 노래는 필요치 않다. 수천 명이 따라 부르는 초나라의 대중 노래인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이 필요한 곳이다. 고상한 '백설'과 '양춘'의 노래는 너무 어려워져 겨우 수십 명밖에 따라 부르지 못한다.<sup>56)</sup>

空林一夜六花開	빈 숲 한 밤 눈꽃이 피었고
庭院無風暗自堆	뜰 안에는 바람 없어 밤새 쌓였네
侵曉獨眠誰護鶴	새벽 들어 홀로 잠드니 학은 누가 지키며
衝宵爭發不禁梅	밤새도록 다투어 피는 매화 막지 못하네
調高郢市歌難和	곡조 높은 초나라 서울 노래 따라 하기 어

55) “공간은 움직임, 개방, 자유로, 장소는 정지, 안전, 안정으로 비유된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인 것이고 인간의 경험이 녹아들 때 장소가 된다.”, (에드워드 쉘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08~115쪽).

56) “영(郢)땅의 소리는 즉 초(楚)나라 서울의 백설(白雪), 양춘(陽春)과 같은 고상한 노래라는 뜻이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대중가요인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은 수천 명이 따라 부르더니, 고상한 ‘백설’과 ‘양춘’의 노래는 너무 어려워져 겨우 수십 명밖에 따라 부르지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송옥(宋玉)의 ‘對楚王問’에 나온다.”, 『文選』 卷23.

## 렵고

興入山陰舟易廻      흥에 겨워 산음에 들렀다가 배 쉽게 돌리네  
 千古聚星留節制      천고의 선비 모여 알맞게 조절하게 하여  
 煩君莫取寸兵來<sup>57)</sup>      그대여 작은 병장기도 오지 말게 하소서.

금당곡은 때로 흥이 나면 진나라 왕휘지(王徽之)가 눈 덮인 달 밝은 밤에 산음(山陰)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불현듯 섬계(剡溪)에 있는 벗 대규(戴逵)가 보고 싶어, 밤새도록 배를 몰고 그의 집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것처럼<sup>58)</sup> 마음 가는대로 그에 맞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박손경에게 있어서 이곳에서의 삶은 별들의 모임과 같았다. 마치 후한(後漢)의 진식(陳寔)이 원방(元方), 계방(季方) 두 아들과 손자 장문(長文)을 데리고 순숙(荀淑)의 집에 가자 하늘에 덕성(德星)이 모이는 상서(祥瑞)가 나타났고, 태사(太史)가 “오백 리 안에 현인(賢人)이 모였을 것입니다.”라고 상주(上奏)했다는 고사<sup>59)</sup>처럼 덕망과 재능을 갖춘 선비들이 모여 교류하고 지역민을 교화하고 참된 인간을 실현 하는 것과는 같았다.

비유하자면 박손경의 시선에서 ‘금당곡’은 욕계제천(欲界諸天) 위에 있는 색계(色界)로 상징 될 수 있다. 이곳은 색신과 물질의 속박을 벗어난 순수한 정신적인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장소와도 같은 곳이다.

57)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能齋雪後寄天休’.

58)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가 눈 덮인 달 밝은 밤에 산음(山陰)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불현듯 섬계(剡溪)에 있는 벗 대규(戴逵)가 보고 싶어지자, 밤새도록 배를 몰고 그 집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와서는, 흥이 일어나서 찾아갔다가 흥이 다해서 돌아왔다고 말한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任誕』.

59) “취성(聚星)은 덕망과 재능을 갖춘 선비의 모임을 뜻하는 말로, 후한(後漢)의 진식(陳寔)이 원방(元方), 계방(季方) 두 아들과 손자 장문(長文)을 데리고 순숙(荀淑)의 집에 가자 하늘에 덕성(德星)이 모이는 상서(祥瑞)가 나타났고, 태사(太史)가 “오백 리 안에 현인(賢人)이 모였을 것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太平御覽』 卷384.

千林綠翠積如崩	깊은 숲 녹음 우거져 무너질 듯하고
玉露瓊瓏色界澄	옥 이슬 영롱하여 색계 맑네
高閣畫仙人依月	높은 누각 그림 속 선인은 달에 있고
上房疎宿佛傳燈	상방의 성긴 별은 불전의 등불 일세
靑山別去留孤夢	청산 속 이별은 외로운 꿈속 머문듯하고
紅葉重來約老僧	단풍들면 다시 오마 노승과 약속했네
料得明朝苔逕滑	내일 아침은 이끼 낀 길 미끄러울 테니
蹇驢應復讓烏藤. <sup>60)</sup>	늙은 당나귀 응당 지팡이에게 양보하겠지.

이는 마치 '금당곡'을 색신과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난 무색계의 '진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간세계로 바라 본 것이다. 세상을 욕계(欲界)와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 삼계로 나누었을 때, '금당곡'은 욕계를 탈피하여 진인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머물러야 하는 중간 단계인 것이다. 유가 본연의 인간의 모습인 '천형(踐形)', 그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열린 공간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풍경에는 '조망'과 '은신'이라는 '행위'와 '마음가짐'이 적절하고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영국의 지리학자 애플턴(Appleton, J)에 따르면 나무 그늘, 산그늘, 골짜기, 구름, 안개 등은 숨어서 은신한다는 행위에 감춰진 마음가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up>61)</sup> 박손경의 경우도 시창작에 있어서 지리적 공간의 표상과 재현에 상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그는 '백운', '청산', '학', '매화' 등의 색깔이 뚜렷한 언어와 '적성(赤城)', '산성(山城)' 등의 지세(地勢)를 상상하게 하는 단어들을 사용해 독자들로 하여금 금당곡에 대한 지리적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자신의 지리적 감각을 드러내어 공간에 새로이 의미를 부여하여 재현해 내고 있다.

60)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內院留題 二首' 2.

61) 나카무라요시오/ 김재호 옮김, 『풍경학입문』, 도서출판 문중, 171~172쪽.

清溪渡盡白雲間	맑은 개울 건너 끝나는 곳 흰 구름 사이
爲是琳宮在翠巒	절간은 푸른 산 봉우리에 있네
淨室香煙僧睡穩	맑은 방의 향 연기에 스님 잠 편하고
短筇華髮客遊閒	짧은 지팡이 백발의 나그네 여행 한가롭네
一樓光景通千界	누각의 광경은 천리 경계에 다다르고
十幀丹青耀四山	열 폭 단청은 사방에 빛나네
內院他時傳勝事	내원에 다른 때 뛰어난 사적 전하여
聊圖三老到仙關。 <sup>62)</sup>	에오라지 나부끼어 삼로 선관에 이르렀네.

한편으로 ‘금당곡’은 맑은 개울 건너 흰 구름 사이의 절간이 되고, 내원궁(內院宮)에 비유된다. 내원궁은 도솔천(兜率天)의 내부 곧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처소이다. 도솔천 미륵보살의 정토(淨土)로 수미산 꼭대기 하늘 위에 도솔천이라는 천상세계가 있고, 여기에 내원궁, 외원궁이 있다. 미륵보살은 내원궁에 있으면서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장차 인간 세상에 출세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박손경에게 있어서 소백산 아래 영남 최북단 예전 ‘금당곡’에서의 삶은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교화하는 미륵보살의 행위에 비유될 수 있다.

박손경은 비록 성인, 석가모니불은 될 수 없지만, 인간 본연의 참된 모습을 찾고 체득하는 처사로 단힌 삶을 살면서 ‘천형’을 실천했다. 박손경은 이를 통해 유가 본연의 참된 인간이 되어 교화 받지 못한 지역민을 교화하고 ‘금당곡’에 교화된 풍습과 문화가 만연하여, 마침내 ‘금당곡’이 세상을 향해 열리는 시대를 꿈꾸고 바랐는지도 모른다. 위의 시 마지막에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 산속 내원에 먼 뒷날 자신이 금당곡에서 ‘천형’을 실천하고 떠난 뒤 인간의 참된 직분을 행했던 뛰어난 행적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희망하는 바람이 보인다. ‘삼로(三老)’로 상징 되는 처사 박

62)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卷之二, ‘又追成 一首’.

손경 자신이 이곳 선관에 자주 머물다 갔던 사실이 망각되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박손경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것들이 행해지고 만들어진 공간, '금당곡'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처사 박손경의 단한 삶에 의해 단한 공간 십승지 '금당곡'이 열린 공간으로 재발견 되었다. 박손경은 구고(九臯)에서 우는 학처럼 삶을 살다갔다. 박손경은 학식과 행의가 훌륭하여 18세기 '영남삼로'로 추앙을 받았고, 여러 번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처사로서 일생을 마쳤다. 박손경은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것', 곧 '천형'을 사람의 직분으로 이해했고, 그것을 예천 '금당곡'에서 실천했다. 박손경이 '금당곡'에서 처사로 '진인(眞人)'을 실현하고, 문학을 생산해 낸 것은 십승지 '금당곡'이라는 사회·지리적 결과와 질서 속에서의 장소 점유와 문화의 생산임을 알 수 있었다.

박손경에게 있어서 문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유가 본연의 인간 전형을 실현하는 삶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자연스러운 '천형'의 행위였다. 당대 예천 '금당곡'은 난세에 몸을 감추고 은둔하기에 좋은 청정무구한 단한 공간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박손경의 문학에 표상되는 '금당곡' 또한 사계의 아름다움이 물씬한 수려한 풍광의 사회와 격리될 때 묻지 않은 단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자체로 화려한 적성(赤城)에 비단 장막을 두른 원림(園林)에 비견될만했다. 그러나 박손경의 삶과 행적, 그리고 그의 문학 속에 내재된 심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에게 있어서 '금당곡'은 단순히 당대 알려진 청수한 풍경의 폐쇄적 지리 공간 십승지가 아니었다. 18세기 '영남삼로'로서 '천형(踐形)'을 실천하는 영남 문화주체의 문화공간이며, 열린 공간이었다. 박손경의 문학작품에 재현

된 금당곡은 ‘일상의 공간’, ‘교유·교화의 공간’, ‘천형의 실천 공간’이었다. 곧 ‘금당곡’은 문화가 생산되는 장소였다.

이 글은 문화공간 ‘금당곡’에 관련된 문학 속에 재현된 공간 표상이 미학적 원리를 구현하는 현상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사회적, 상징적 재생산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공간 생산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박손경이 재현하는 ‘금당곡’에 관한 이미지, 담론, 서사 등은 모두 이 지역을 사회적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상징적 재생산 방식의 하나이다. 문학은 지리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행위와 관계들을 상상적 차원에서 연결해주는 복잡하고 상호적인 관계망이다. 상징적 차원에서 연결되고 통합되는 문학 속의 공간적 표상들은 실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리·사회적 관계들을 연결해 주고 이를 통해 물리적 실재로서의 지리적 공간을 하나의 사회적 의미와 질서가 있는 공간으로 생성해 내는 일종의 공간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참고자료

『국역 일성록』.

『신증동국여지승람』.

『朝鮮王朝實錄』.

朴孫慶, 『南野先生文集』, 國立中央圖書館.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民族文化推進黨.

尹 祥, 『別洞先生集』, 民族文化推進黨.

李象靖, 『大山先生文集』, 民族文化推進黨.

丁範祖, 『海左先生文集』, 民族文化推進黨.

鄭宗魯, 『立齋先生文集』, 民族文化推進黨.

### 2. 논저

권경록, 「李海朝의 ‘峴山三十詠’을 통해본 지리인식과 襄陽地域의 사회적 상징성」, 『동양한문학연구』 34호, 동양한문학회, 2012.

\_\_\_\_\_, 「‘太白五賢’의 삶을 통해 본 奉化地域의 문학지리」, 『한국학연구』 38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8~12쪽.

김보경, 「寓菴 洪彦忠의 시에 나타난 巨濟島의 표상과 유배체험의 형상화 양상」, 『韓國古典研究』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이승수, 「1790년 熱河 使行의 ‘二道井~熱河’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탐색」, 『고전문학연구』 제40권, 한국고전문학회, 2011.

장유승, 「문화공간으로서의 浮碧樓-중앙문인과 지역문인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53집, 한국한문학회, 2014.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영남학』 27, 영남문화연구원, 2015

\_\_\_\_\_,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에 대한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

제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정후수, 『『樂健志詠』으로 본 17세기 漢江 下流의 새로운 문화 공간 杏湖』, 『동방학』 32, 동양고전연구소, 2015.

허성도, 『孟자의形色論』, 『중국문학』 제78집, 한국중국어학회, 2014, 36~39쪽.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생, 2005.

기꾸치 도시오 저/ 윤정숙 역,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 1995.

김백영, 『지배와 공간』, 문학과 지성사, 2009.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상·중·하, 논형, 2005.

나카무라 요시오/ 김재호 옮김, 『풍경학 입문』, 도서출판 문중, 2008, 128~172쪽.

미즈우치 도시오 편/ 심정보 역,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2010.

서종문, 『고전문학의 사회·역사적 소통』, 박문사, 2009.

안스가 뉘닝·로이 조머 펴냄/ 문화학연구회 옮김, 『문화이론과 문학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08~148쪽.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조선시대 문인의 땅과 삶에 대한 문화사』 1~4, 휴머니스트, 2006.

이진경,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이-푸 투안 저/ 심승희·구동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이효덕 지음/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사, 2002, 19~20쪽.

전중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 2012.

정두희 편,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3.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_\_\_\_\_,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8,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존 앤더슨 지음/ 이명민·이종희 옮김, 『문화 흔적 장소-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한울, 2013, 98쪽.
- 콜린 플린트 저/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길, 2007.

<Abstract>

The social symbolism of the ‘Geumdangnok’  
as viewed through Namya Park Son-Gyeong’s  
life and literature

Kwon, Kyong-rok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life and literature of Namya Park Son-gyeong, who was one of ‘Three Old Men of Yeongnam’, and examine the cultural and geographic meanings of his place through his poetry and prose. He was revered as one of ‘Three Old Men of Yeongnam’ in the 18th century along with Daesan Lee Sang-jeong and Baekburam Choi Heung-won. He did not hold a government position and was devoted to practice at ‘Geumdangnok’ of Yecheon, which was called Shipseungji, until he passed away as a classical scholar that lived in a remote village without holding office. The present study developed its discussions in the method of literary geography, which promotes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s between geographical space and literary representation, to shed light onto the meanings of spatial representations reproduced in his literature as social spaces. The study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Park’s literary spatial representations related to ‘Geumdangnok’ were socially created spaces.

The findings show that ‘Geumdangnok’ reproduced in his literature represented ‘space for life’, ‘space for social intercourse and reformation’, and ‘space for the practice of Cheonhyeong’. He

understood 'Cheonhyeong' or 'practice of being human' as the duty of man and found a life space for the fulfillment of the duty in 'Geumdangnok', which was a space of mental imagery of a 'true man' that practiced life as a true human being of the times. His practice of 'Cheonhyeong' as a classical scholar that lived in a remote village without holding office and his literary creation at 'Geumdangnok' were the results of place occupation and cultural production in the social and geographic outcome and order of 'Geumdangnok', one of Shipseungji.

Key Words : Park Son-gyeong, Lee Sang-jeong, Choi Heung-won, Three Wise Men of Yeongnam[嶺南三老], literary geography, Yecheon(醴泉), Geumdangnok(金塘谷), Shipseungji(十勝地), Cheonhyeong(踐形), space of mental imagery.

■ 논문접수 : 2016년 3월 17일

■ 심사완료 : 2016년 4월 18일

■ 게재확정 : 2016년 4월 21일

